

회의명

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

기간

2024. 5. 23.(목) 14:00~15:00

장소

센터 내 프로그램실

참석자

-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
- 연수구가족센터 가족3팀장 박정윤
-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장 김윤정
-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
-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이미정
-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용길
- E4NET 이사 임기운
-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순
- 센터 이용자 대표(비다문화) 정세연 (이상 9명)

작성 자

박정윤 가족사업 3팀장

회의 내용

1.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 
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총 9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.
2. 운영위원 소개  
- 박정윤 간사가 참석 운영위원 총 9명을 소개하고, 이도희 위원장이 참석 위원에게 인사말씀을 전달하였다.
3. 2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
- 박정윤 간사가 서면자료를 통해 센터 현황 및 2분기 팀별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다. 이에 이혜순 위원의 동의와 김용길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.  
• 위원의견  
▷ 이도희 위원이 연수구가족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  
- 이에 주영신 센터장이 센터 사업 중 신규 사업, 특색 사업에 대하여 답하다  
[한국어 발음반] 2024년 한국어 수업 중 발음반을 신규 개설하였으며, 저녁 시간 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발음을 교정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음  
[결혼이민자 취업지원] 취업 과정 운영 중이며, 수요처와 결혼이민자의 요구가 높은 업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며, 2024년에는 피부 미용반을 개설·운영 중  
[다함께 반찬찬] 다문화·비다문화 가정을 연계하여,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, 요리를 매개로 문화 및 정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중  
▷ 이도희 위원이 5월 25일 진행하는 다어울림 페스티벌을 소개하며, 가족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,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하다.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고생

하고 노력하는 가족센터 종사자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다.

▷ 김용길 위원은 2분기 운영 현황 작성 시 운영 내용, 대상, 일정 등 양식을 통일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▷ 이미정 위원은 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여러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관련 협업 문의가 많아, 진로 교육센터와 예산·프로그램의 협업을 통하여 현재 청학중에 방문하여 주2회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다.

- 김용길 위원은 세화 복지관에서 옥련중·함박중 대상 학업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중이라고 부연 설명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설계 및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다.

▷ 이해순 위원은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국적동포지원사업 중 유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가족센터에서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5~7세 아동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,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가리따스 수녀회에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다.

- 이해순 위원은, 영유아기 자녀를 둔 고려인의 정착이 늘고 있어 고려인 자녀와 부모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였으며,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연수구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며, 센터에서도 고려인 영유아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## 회 의 내 용

- 주영신 센터장은 외국국적동포 대상 야외 나들이나 체험 가족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아, 방학 등을 활용하여 대상을 확대(영유아→학령기 아동) 운영하고자 한다고 답하다.

- 김윤정 위원은 외국국적동포 대상 사업에 대한 문의가 구청으로도 많이 오는데,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, 홍보할 경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계속 참여하고 신규 모집이 어렵다는 답변을 제시하다.

- 김윤정 위원은 고려인 관련 사업 문의 시, 연수구가족센터와 함박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데, 실정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부연 질의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고려인 자녀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등도 요구가 있어 개설하면, 참여율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답하다. 또한 함박복지관과 중복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, 조율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중복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다.

- 이해순 위원은 고려인 가정 특성상 보호자의 맞벌이로 자녀 한국어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것이며, 19시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여도 영유아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대여서 운영시간의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함박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랐는데, 외국인 이용이 늘어나자 내국인의 이용이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하다.

- 이해순 위원은 고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, 고려인을 동포라고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다.

- 김윤정 위원은 가족센터에서도 이러한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캠페인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다.

- 김용길 위원은 관내 고려인 동포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, 세화복지관 내 어린이 집 원생의 80%가 고려인 자녀로, 보육 교사 등 종사자가 고려인 동포 보호자 및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 있다고 답하다.

- 이도희 위원장은 고려인의 정착 관련 프로그램이 집중되어, 영유아 자녀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, 청소년 관련 범죄, 사회적 치안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- 김윤정 위원은 고려인 청소년이나 자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집, 상담센터 등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이나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하다.

- 주영신은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 또한 이도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, 초기 정착 지원에서 자녀성장지원으로 대상과 방향이 변경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#### 4. 2024년 2분기 예산 및 정산 보고

-2024년 2분기 예산 및 정산에 대하여 박정윤 간사가 서면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. 이에 이미정 위원의 동의와 이혜순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.

##### • 위원의견

▷ 김용길 위원은 이월금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주로 아이돌봄 이용자 수입의 이월금이라고 답하다

- 김용길 위원은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, 자체 사업인지 혹은 필수 사업인지 질의하다.

- 주영신 센터장은 가족센터 사업은 여가부 메뉴얼 사업으로 대부분이 필수 사업이나, 중복 사업도 많아 사업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다.

- 이미정 위원은 초창기 여가부의 가족센터 사업은 10% 범위 내에서 특화 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하다.

- 주영신센터장과 김윤정 위원은 가족센터 사업 중 다문화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다고 답하다.

- 이도희 위원장은 중복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부연 설명하다.

#### 5. 2024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

- 2분기 사업 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떤지 이도희 위원장이 제안하고, 김용길 위원과 김윤정 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.

#### 6. 폐회

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연수구가족센터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.